

#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이해: 선행요인 탐색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종효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본 연구는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탐색하고 더불어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이 이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의 선행요인으로서 유아기(infancy)부터 유치원 연령(5.5세)까지 측정된 아동의 기질(즉흥적 분노, 반응적 고통)과 사회지각능력, 어머니의 우울증을 살펴보았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한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측정된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포함되었다. 연구결과, 아동의 즉흥적 분노가 많을수록, 사회지각능력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이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차별적 선행요인으로서, 대인관계 공격행동은 아동의 성(여아)에 의해 그리고 피해행동은 반응적 고통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또한 어머니 우울증과 아동의 즉흥적 분노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의 설명에 추가적으로 기여하였다. 설명변인으로서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은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을 통제한 후에도 동시적으로(1학년)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경험하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아동기중반에 이르는 미국의 종단자료를 사용하여 또래 공격행동과 피해행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하는지 그리고 또래관계의 어려움이 이후의 문제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또래관계의 중요성과 발달적 인과성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요어 :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피해행동, 어머니 우울증, 아동의 기질, 사회지각능력

또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Ladd & Burgess, 2001). 최근 들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대한 활발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동일한 시점에 측정한 변인사이의 상관 연구에 집중됨으로써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이전, 아동이나 가족의 특성이 어떻게 또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가 어려웠다(김혜원, 이혜경, 2000; 박종효, 2004; Wolke, Woods, Bloomfield, & Karstadt, 2000). 마찬가지로,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시점에 측정함으로써, 일정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영향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하는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을 설명하는 선행요인으로서 유아기 (infancy)부터 유치원 연령까지 측정한 아동의 기질 및 심리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우울증 변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이 1학년 때 경험하는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동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2년이 지난 후에 측정한 문제행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 어머니 우울증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Cummings & David, 1994; Goodman & Gotlib, 1999). 우울한 어머니의 유아는 우울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보다 위축된 반응을 더 많이 보이며 기질적으로 까다롭고 어머니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Murray, Fiori-Cowley, & Hooper, 1996). 아동기 초기나 학령전기 아동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는 엄마를 둔 경우,

자아통제능력이 결여되며 또래나 성인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Cicchetti, Rogosch, & Toth, 1998). 우울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은 어머니보다 아동의 필요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들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유아기 시절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대인관계의 기본틀로서 공격행동과 피해행동과 같은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해 준다(Goodman & Gotlib, 1999). 수많은 연구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된 바와 같이, 유아기나 학령전기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동의 공격행동과 피해행동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게 된다(Park, et al, in press; Shields, Ryan & Cicchetti, 2001).

### 기질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나 학령전기의 기질은 아동기 초기, 중기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Rothbart & Bates, 1998). 기질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까다로운 기질은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잘 내고 좌절감을 자주 느끼며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유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인다(Rubin, Coplan, Fox, & Calkins., 1995).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1995)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부정적인 감정(분노)의 강도가 높고 동시에 조절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공격적인 행동을 포함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여주었다.

까다로운 기질, 예를 들면 정서 및 행동 통제에 어려운 기질은 또래 피해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Schwartz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9)에 의하면, 부주의하고 산만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은 또래 공격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기 때 측정된 까다로운 기질, 짜증이 많고 부주의한 성향은 청소년기 또래 피해행동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Pope & Bierman, 1999). 또한 기질적으로 쉽게 위축되고 자주 놀라거나 우는 등 반응적 고통수준이 높은 아동 역시 또래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특히 이들은 또래 공격자가 위협할 때 미성숙한 방식(울기)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공격행동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Hodges & Perry, 1999; Olweus, 1993).

### 사회지각능력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지각능력(Social Perception Skills)은 관점채택과 정서인식 및 조절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팀에 의해 새롭게 명명되었다. 관점채택이나 정서인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지각능력은 또래관계, 특히 또래 공격행동과 피해행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이고 적대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아동은 또래에게 자주 공격적으로 행동한다(Crick & Dodge, 1994; Coie & Dodge, 1998). 또한 공감이나 동정심과 같은 정서반응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줄여주는데 기여한다(Kaukianen et al, 1999; Miller &

Eisenberg, 1988).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또래로부터 공격당하는 아동들 역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도에 둔감하다(박종효, 2003). Hess와 Atkins(1998)에 의하면, 학급교사나 친구들은 또래로부터 공격당하는 아동을 일반적으로 비협조적이며 집단의 리더로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피해아동이 집단 관계나 역동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은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대인관계 공격행동의 이해

또래 공격행동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때리거나 미는 등의 신체적 공격행동(Physical Aggression)이나 욕을 한다거나 헐담을 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행동(Verbal Aggression)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또래 피해행동도 신체적 혹은 언어적 방식 등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격행동이나 피해행동을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형태로만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Coie & Dodge, 1998). 그러한 결과, 공격행동이나 피해행동은 여아보다는 남아들에게서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Coie & Dodge, 1998; Crick et al., 1999).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 다른 형태의 공격행동이 있는데, 대인관계 공격행동이 그것이다. 대인관계 공격행동(Relational Aggression)은 특정 아동의 친구관계나 대인관계를 해칠 목적으로 그 아동을 다른 친구들로부터 소외시키거나 그 아동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으로 정의된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인

관계 공격행동은 대인관계 혹은 단짝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아 혹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사회적 전략이다. 따라서 대인관계 공격행동의 피해자들은 외현적 공격행동의 피해자들보다 친구들로부터 무시받거나 따돌림 당하는 경향이 강하다(Crick et al., 1999).

###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또래로부터 받은 피해행동은 심리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을 야기하거나 이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박종효, 2003, 2004; 한종철, 김인경, 2000). 예를 들면 빈번한 혹은 높은 수준의 피해행동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증(Craig, 1998; Crick & Grotpeter, 1995; Kochenderfer & Ladd 1996), 대인관계 공포와 불안감(Olweus, 1993), 외로움(Boivin, Hymel, & Bukowski, 1995)을 경험하기 쉽다. 그 외에도, 또래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은 아동은 낮은 자존감(Olweus, 1993)과 저조한 자신감(Hymel, Bowker, & Woody, 1993)을 나타낸다.

피해행동과 부적응 사이의 유의한 정적상관은 동일한 시점에 측정된 횡단자료 뿐만 아니라 단기적 종단자료에서도 확인되었다. Boivin 등(1995)은 또래 지명방식에 의해 측정된 피해행동이 일년 후 아동이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우울증 수준을 유의하게 예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Hodges와 Perry(1999)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피해행동, 교우관계, 그리고 또래로부터의 배척을 또래 보고방식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해서, 일년 동안 증가한 피해행동은 내재화 행동, 예를 들면 위축행동이나

소심함 혹은 공포감, 슬픈 얼굴 표정의 증가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피해행동만이 문제행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들은 공격행동을 보이는 아동들 역시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을 지지해 주고 있다(박종효, 2003, 2004). 특히 공격적이면서 동시에(흔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또래로부터 배척받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 즉 공격적이지만 배척받지 않는 아동이나 배척받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아동과 비교해 볼 때 더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다. 예를 들면 Coie 등(1995)에 의하면, 아동기 시절 빈번한 공격행동을 보이고 또래로부터 배척받은 경험을 가진 아동은 청소년기에 외현화 문제 행동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첫째, 아동이 1학년 때 경험하는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을 설명하는데, 출생 후부터 유치원시절까지 측정된 아동의 기질, 사회지각능력, 어머니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아동의 즉흥적 분노와 어머니 우울증이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의 설명에 유의하게 기여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아동이 1학년 때 경험한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이 동시에적으로 뿐만 아니라 2년 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지속적인 우울증과 아동의 기질 및 사회지각 능력은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증과 아동의 즉흥적 분노는 상호작용을 통해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의 설명에 추가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아동의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은 아동의 특성 및 어머니의 우울증을 통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시점 및 2년 후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아동발달 및 병리에 관한 종단 연구인 위스콘신 아동과 건강(Wisconsin Studies of Child and Health, Essex et al., 2001) 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종단연구는 12-21주된 임산부 583 가족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대략 87%의 연구대상자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대상 아동들은 초등학교 7학년을 마쳤으며 청소년기의 발달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출생 4개월 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측정된 아동의 기질과 사회지각능력, 어머니 우울증, 또래관계, 그리고 문제행동에 관한 아동과 어머니, 선생님 보고가 모두 있는 사례 2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 그리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변인은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아동의 반응을 주요인분석을 사용하여 통합하였다.

### 측정도구

유아기(생후 4개월)와 학령전기(4.5세)의 기질과 유치원 연령(5.5세)의 사회지각능력, 유아기(생후1년)부터 학령전기(4.5세)까지의 어머니의 우울증, 초등학교 1학년 때 측정한 아동의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측정한 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등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반응적 고통과 즉흥적 분노를 측정하였다. 우선 반응적 고통(Reactive Distress)은 아동이 12개월일 때 어머니가 Infant Behavior Questionnaire(Rothbart, 1981)를 작성하였다. 여러 하위척도 중, 행동제지에 대한 고통(Distress to Limit), 낯선 환경에 대한 고통(Distress to Novelty), 그리고 놀람(Startle) 점수를 대상으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을 만들었다. 이 구인을 구성하는 세 하위척도는 모두 .70 이상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보였다.

즉흥적 분노(Anger-prone/Surgency)는 아동이 4.5세 때 비디오 관찰 방식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검사 실시자와 비디오 카메라 녹화자가 아동의 집으로 방문해서 학령전기 기질 검사(Lab-TAB, Goldsmith, Reilly, Lemery, Longley, & Prescott, 1993)를 실시하고, 녹화된 아동의 반응을 바탕으로 아동의 기질을 평가하였다. 즉흥적 분노는 분노, 충동성, 그리고 사회성의 하위척도를 대상으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구성되었다. 즉흥적 분노를 구성하는 세 하위 척도의 경우, 검사실시자와 카메라 녹화자사이의 평정 일치도가 76% 이상이었으며 kappa 신뢰도는 .86이었다.

**사회지각능력.** 사회지각능력은 아동이 5.5세 일 때 교사와 어머니가 Child Adaptive Behavior

Inventory(Cowan, Cowan, Heming, & Miller, 1995)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또래친구 행동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안다’, ‘또래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끼워들 줄 안다’ 등이다. 어머니와 교사가 응답한 반응을 평균하여 점수화하였다. 어머니와 교사가 보고한 사회지각능력의 반분신뢰도는 .70 이상이었으며 두 보고자 반응사이에 유의한 상관을 발견하였다( $r = .24, p < .001$ ).

**어머니 우울증.** 어머니의 우울증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기보고식 검사지인 CES-D (Randolf, 1977)를 실시하였다. CES-D 도구는 높은 내적 일관도 지수를 보고하고 있으며 2-4주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다. CES-D 검사결과가 16점 이상인 경우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증을 재기 위하여 아동이 3, 4, 12개월 때 잰 점수를 평균하여 유아기 어머니 우울증 점수로, 그리고 아동이 3.5세와 4.5세에 잰 점수를 평균하여 학령전기 어머니 우울증 점수로 산출한 후, 유아기와 학령전기 우울증 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유아기부터 학령전기를 포괄하는 어머니 우울증 점수를 얻었다. 다섯 번에 걸쳐 측정한 우울증 점수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 $0.37 < r_s < 0.60, p < .001$ )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된 우울증 점수는 지속적인 어머니의 건강상태의 지표로 사용되었다.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어머니와 교사에게 Health

and Behavior Questionnaire(HBQ; Essex et al., 2002)를, 아동에게는 Berkeley Puppet Interview (BPI; Albow et al., 1999)를 실시하였다. HBQ는 부모와 교사가 작성하는 검사지로 아동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대인관계 및 학교적응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PI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검사도구로서 HBQ와 같이, 적응 및 문제행동에 관한 아동의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HBQ와 BPI 검사 중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피해행동,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포함시켰다. 외현적 공격행동(Overt Aggression)의 예는 ‘다른 아동을 때린다’ 혹은 ‘민다’ 등이다. 대인관계 공격행동의 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고 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피해행동의 예는 ‘다른 아동으로부터 놀림을 받는다’ 혹은 ‘맞는다’ 등이다.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와 교사에게는 HBQ를 그리고 아동에게는 BPI를 아동이 1학년과 3학년 때 실시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에는 우울증, 일반화 불안, 격리불안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고 외현화 문제행동은 행동장애, 반항행동, 그리고 부주의 및 충동성을 포함하였다. HBQ와 BPI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정보가 최근에 보고되었고 내적 일관성 계수가 모두 .80을 넘는다. 세 보고자의 반응을 통합하기 위하여 주요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식은 단독 보고자 방식을 바탕으로 한 점수보다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가능한 오염 및 외생 변량을 통제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 결 과

### 예비분석

표 1은 변인의 남녀차를 검증한 결과이다. 여아는 남아에 비해 반응적 고통 수준이 높았으며, 사회지각능력도 더 발달되어 있었고, 즉흥적 분노와 외현적 공격행동,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은 낮은 반면에,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은 높았다.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 발달의 중요한 설명변수로서 어머니의 우울증은 사회지각능력 및 부적 상관에 있는 반면에, 반응적 고통이나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피해행동, 그리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다.

반응적 고통은 유아기 시절에 측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1학년 피해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학령전기의 즉흥적 분노는 초등학교 1학년 공격행동 및 피해행

동을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지각능력은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 그리고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을 보였다.

###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 우울증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이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은 각 회귀식의 종속변인으로 포함되었고 아동의 성(여아 = 1), 반응적 고통, 즉흥적 분노, 사회지각능력, 그리고 어머니 우울증은 동시에 투입되었다. 그 결과, 표 3의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외현적 공격행동의 32%, 대인관계 공격행동의 21%, 그리고 피해행동의 24%를 설명하였다.

표 1. 측정변인의 남녀차 검증

	남아 평균(표준편차)	여아 평균(표준편차)	t
어머니 우울증	6.43 (5.81)	6.26 (4.81)	-.23
반응적 고통	-.19 (.99)	.16 (.98)	2.60**
즉흥적 분노	.19 (.94)	-.18 (.98)	-2.82**
사회적 지각	-.22 (1.05)	.19 (.95)	2.96**
외현적 공격행동	.17 (1.10)	-.22 (.77)	-3.02**
대인관계공격행동	-.07 (.91)	.04 (.96)	.91
피해행동	.01 (1.08)	-.06 (.93)	-.53
내면화문제행동	-.19 (.96)	.08 (1.03)	2.03*
외현화문제행동	.29 (1.06)	-.26 (.92)	-4.05***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어머니 우울증								
2. 반응적 고통	.24***							
3. 즉흥적 분노	.07	-.03						
4. 대인지각능력	-.12	.08	-.22**					
5. 외현적 공격행동	.27***	-.07	.30***	-.44***				
6. 대인관계 공격행동	.21**	-.02	.24***	-.27***	.66***			
7. 피해행동	.26***	.18**	.26***	-.34***	.50***	.35***		
8. 내재화 문제행동	.43***	.13	.18**	-.19**	.44***	.35***	.47***	
9. 외현화 문제행동	.26***	-.11	.34***	-.47***	.74***	.46***	.43***	.55***

\*  $p < .05$ ; \*\*  $p < .01$ ; \*\*\*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의 외현적 공격 행동은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각할수록( $\beta = .24, p < .001$ ), 즉흥적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beta = .23, p < .001$ ), 그리고 사회지각능력이 낮을수록( $\beta = -.34, p < .001$ )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대인관계 공격행동은 아동이 여아인 경우( $\beta = .17, p < .01$ ),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할수록( $\beta = .20, p < .001$ ), 즉흥적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beta = .28, p < .001$ ), 그리고 아동의 사회 지각능력이 낮을수록( $\beta = -.21, p < .001$ ) 증가하였다. 일관되게, 피해행동도 어머니의 우울증이 심각할수록( $\beta = .18, p < .01$ ), 반응적 고통수준이 높을수록( $\beta = .14, p < .05$ ), 즉흥적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beta = .22, p < .001$ ), 그리고 사회지각능력이 낮을수록( $\beta = -.30, p < .001$ )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즉흥적 분노와 어머니 우울증, 그리고 사회지각능력은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을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반면에, 아동의 성(여아)은 대인관계 공격행동을, 그리고 반응적 고통은 피해행동을 고유하게 설명하였다.

표 3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은 아동의 즉흥적 분노와 어머니 우울증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표 3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은 아동의 즉흥적 분노와 어머니 우울증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표 3. 중다회귀분석: 1학년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피해행동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아동의 성(여아)	-.08	-1.42	-.10	-1.68	.17	2.81*	.16	2.60*	.05	.82	.04	.58
어머니 우울증	.24	4.21***	.23	4.04***	.20	3.23***	.19	3.12**	.18	2.93**	.17	2.78**
반응적 고통	-.09	-1.54	-.09	-1.52	-.07	-1.09	-.07	-1.10	.14	2.31*	.14	2.35*
즉흥적 분노	.23	3.95***	.05	.55	.28	4.49***	.10	.94	.22	3.68***	.05	.47
사회지각능력	-.34	-5.88***	-.34	-5.94***	-.21	-3.40***	-.22	-3.44***	-.30	-4.85***	-.30	-4.90
우울증*즉흥적 분노			.21	2.21*			.22	2.11*			.21	2.12*
F값/F값 증가량	F(5,227)=21.09*** $\Delta$ F(1,222)=4.87*				F(5,222)=11.57*** $\Delta$ F(1,222)=4.44*				F(5,227)=14.10*** $\Delta$ F(1,222)=4.47*			
R <sup>2</sup> /R <sup>2</sup> 증가량	R <sup>2</sup> = .32 $\Delta$ R <sup>2</sup> = .014				R <sup>2</sup> = .21 $\Delta$ R <sup>2</sup> = .016				R <sup>2</sup> = .24 $\Delta$ R <sup>2</sup> = .015			

\*  $p < .05$ ; \*\*  $p < .01$ ; \*\*\*  $p < .001$



사용한 동일한 회귀식에 상호작용 변수(즉흥적 분노\*어머니 우울증)를 두 번째 단계에 투입하였다. 표 3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의 R<sup>2</sup>와 F값은 상호작용 변수의 추가로 인해 증가한 설명량과 단계의 유의성 수준에 관한 것이다. 주효과와 함께, 어머니의 우울증과 아동의 즉흥적 분노의 상호작용은 외현적 공격행동의 33%, 대인관계 공격행동, 23%, 그리고 피해행동의 26%를 설명하였다.

다음은 상호작용 효과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아동의 즉흥적 분노와 어머니의 우울을 상하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흥적 분노 상 집단은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이상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며 하 집단은 평

그림 1. 외현적 공격행동

그림 2.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림 3. 피해행동

균에서 1 표준편차 이하의 점수를 얻은 집단이다. 어머니 우울증의 경우도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차이를 두고 상하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부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흥적 분노수준이 높으면서 어머니 우울수준이 높은 아동은 즉흥적 분노만 높거나 어머니 우울 수준만 높은 아동이나 두 가지 모두 낮은 경우의 아동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외현적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과 피해행동을 보였다.

###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I: 동시적 효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데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이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되었으며 두 번째 단계에는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이 투입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에서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각각 19%와 36%를 설명하였으며(첫 번째와 두 번째 행) 두 번째 단계에서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은 대략 20%-30% 정도 추가적으로 문제행

표 4. 중다회귀분석: 1학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아동의 성	.19	3.03**	.19	3.22**	-.13	2.81**	-.11	-2.43**
어머니 우울증	.27	4.30***	.16	2.81****	.17	3.02**	.01	.11
반응적 고통	.07	1.12	.02	.34	-.03	-.45	.01	.25
즉흥적 분노	.17	2.61**	.05	.79	.23	4.03***	.06	1.41
대인지각능력	-.17	-2.65**	-.00	-.02	-.40	-6.94***	-.17	-3.76***
외현적 공격행동			.17	1.94*			.55	8.31***
대인관계 공격행동			-.07	-.87			.05	.78
피해행동			.45	6.73***			.12	2.27*
F값/F값 증가량	F(5,216)=10.38***		$\Delta$ F(3,213)=23.95***		F(5,216)=24.15***		$\Delta$ F(3,213)=58.39***	
R <sup>2</sup> /R <sup>2</sup> 증가량	R <sup>2</sup> = .19		$\Delta$ R <sup>2</sup> = .20		R <sup>2</sup> = .36		$\Delta$ R <sup>2</sup> = .29	

\*  $p < .05$ ; \*\*  $p < .01$ ; \*\*\*  $p < .001$

동의 변량을 설명하였다(세 번째와 네 번째 행). 결국 내재화 문제행동의 39%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65%가 아동의 특성, 어머니의 우울증, 그리고 또래공격 및 피해행동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성( $\beta = .19, p < .01$ , 여아), 어머니의 우울증( $\beta = .27, p < .001$ ), 피해행동( $\beta = .45, p < .001$ )과 외현적 공격행동 ( $\beta = .19, p < .05$ )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더불어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은 즉흥적 분노, 사회지각능력과 내재화 문제행동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와 세 번째 행의 회귀계수를 비교해 보면 즉흥적 분노와 사회지각능력은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이 투입되기 이전에는 유의한 설명변수(즉흥적 분노:  $\beta = .17, p < .01$ ; 사회지각능력:  $\beta = -.17, p < .01$ )였으나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이 투입된 후에는 더 이상 이들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beta = .05, -.00$  ns). 이러한 결과는 학령전기의 즉흥적 분노나 유

치원 연령의 사회지각능력은 초등학교 1학년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유사하게,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성( $\beta = -.13, p < .01$ ), 사회지각능력( $\beta = -.17, p < .001$ ), 외현적 공격행동( $\beta = .55, p < .001$ ), 그리고 피해행동( $\beta = .12, p < .05$ )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또한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은 어머니 우울증( $\beta = .17, p < .01$ ), 즉흥적 분노( $\beta = .23, p < .001$ )와 외현화 문제행동사이의 관련성을 완전하게 매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beta = .01, .06$ , ns).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증과 즉흥적 분노는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될 수 있다.

**공격 및 피해행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II: 동시적 문제행동 통제**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이 내재화 및 외현

화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더 나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 우울증, 그리고 중속변인과 동일한 1학년 문제행동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즉 3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을 예언할 때에는 1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을 포함하였고(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은 제외), 3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언할 때에는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을 추가하였다(1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은 제외).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는 1학년 외현화 공격행동, 대인관계 공격행동 그리고 피해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다.

표 5의 세 번째와 네 번째 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학년 내재화 문제행동은 1학년 내재화 문제행동과 유아기부터 유치원 시기의 아동 및 어머니의 요인을 통제 후에도, 1학년 외현적 공격행동( $\beta = .21, p < .05$ )과 피해행동( $\beta = .14,$

$p = .05$ )에 의해 유의하게 예언되었으며 약 5% 정도의 변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마찬가지로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과 유아기부터 유치원 시기의 아동 및 어머니 요인을 통제 한 후에도, 1학년 외현적 공격행동( $\beta = .33, p < .001$ )은 3학년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의하게 예언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약 4% 변량을 설명하였다. 통제변수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명되는 변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의 영향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해석된다.

##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학령전기에 측정된 아동의 기질 및 사회지각능력과 어머니의 우울증이 학령기 또래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의 중요한 설명변수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즉흥

표 5. 중다회귀분석: 3학년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3학년 내재화 문제행동				3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아동의 성	.11	1.96+	.15	2.53*	.00	.00	-.01	-.13
어머니 우울증	.29	4.97***	.25	4.36***	.15	3.15**	.11	2.43*
반응적 고통	-.02	-.40	-.02	-.37	-.10	-2.17*	-.07	-1.58
즉흥적 분노	.10	1.81	.05	.97	.03	.73	-.00	-.07
대인지각능력	-.08	-1.40	.01	.22	-.12	-2.33*	-.09	-1.87+
1학년 내재화 문제행동	.42	7.05***	.30	4.51***	---	---	---	---
1학년 외현화 문제행동	---	---	---	---	.65	12.51***	.39	4.93***
1학년 외현적 공격행동			.21	2.53*			.33	3.85***
1학년 대인관계 공격행동			.00	.01			.01	.08
1학년 피해행동			.14	1.97*			.03	.52
F값/F값 증가량	F(6,201)=23.03***		$\Delta$ F(3,198)=6.46***		F(6,201)=50.00***		$\Delta$ F(3,198)=6.33***	
R <sup>2</sup> /R <sup>2</sup> 증가량	R <sup>2</sup> = .41		$\Delta$ R <sup>2</sup> = .053		R <sup>2</sup> = .60		$\Delta$ R <sup>2</sup> = .035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적 분노와 어머니의 우울증은 상호작용을 통해 추가적으로 또래관계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우울증은 또래관계의 매개과정을 통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격행동 및 피해행동은 선행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동시적 뿐만 아니라 2년 후 문제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증은 아동의 또래관계 뿐만 아니라 문제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어머니 우울증의 영향은 다양한 발달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어머니의 유전적 영향이나 임신 중의 환경적 영향이 태아의 신경생리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 관계, 예를 들면 애착이나 양육방식을 통해 어머니의 우울증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Goodman & Gotlib, 1999).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관계나 문제행동이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증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부분과 별도로, 어머니 우울증은 즉흥적 분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어머니가 우울해하고 아동이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하게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발달 메커니즘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어머니는 아동의 요구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아동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불안정한 애착관계는 아동의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나 긍정적 기대를 저해함으로써

또래관계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icchetti, et al., 1998; Hay, 1997). 특히 아동이 기질적으로 쉽게 분노하고 즉흥적이며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경우,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이나 상호작용은 아동의 또래관계나 문제행동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된다(Bates, Pettit, Dodge, & Ridge, 1998).

어머니 우울증과 함께, 사회지각능력은 또래관계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사회지각능력은 일반적인 인지능력의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발달된다. Piaget의 연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예 6세)과 함께 지적으로 성숙해져야 할 것이다(상호성이나 평등성 개념의 이해). 그렇지만 이러한 성숙이나 발달보다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아기에 경험하는 가족관계이다. 가족관계를 통해 유아기 초기에 형성된 대인관계 표상(Interpersonal Representation)은 또래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주도하는 기본 틀로 작용한다(Cillessen & Bellmore, 2002; Jacobsen & Hofmann, 1997). 따라서 부모나 가족들에게 부당한 대우나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애매한 상황에서조차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왜곡된 대인관계 지각 때문에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즉흥적 분노를 자주 표현하게 된다(김소명, 현명호, 2004; Dodge, Lochman, Harnish, Bates, & Pettit, 1997; Shields & Cicchetti, 2001; Shields, et al., 2001).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로서, 사회지각능력

은 아동의 또래관계나 문제행동을 예방하거나 이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돕는 데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교사나 학부모는 어린시기부터 형성해 온 사회지각능력의 성격을 탐색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곽금주, 1999;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03; Park, 2003).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학령기 또래 공격 및 피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의 특성 및 어머니 요인을 또래관계가 형성되기 이전 시기인 유아기부터 유치원시기까지 측정함으로써 발달에 대한 예언적 설명력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이전에 이미 발견되는 아동의 기질이나 사회심리적 특성 그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을 기초로, 학령기에 또래 공격자나 피해자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조기 선별과정을 거쳐 또래관계나 문제행동에 취약한 아동을 찾아내고 이들을 위해 적절한 처치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이후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곽금주, 1999,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3; Park, 2003).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제한적이다. 우선 연구 자료가 미국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가 우리나라 아동의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 이해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 수 없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격

행동 및 피해행동 연구는 러시아나 유럽, 호주, 중국을 포함한 다른 문화와 국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예. Hart et al.,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 역시 우리나라 아동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유아기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양한 아동의 특성을 포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의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동의 특성과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관계 및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설명변수를 포괄하는 이론적 모형을 가정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 (1):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 105-122.
- 김소명, 현명호 (2004). 가정폭력이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임상, 23, 17-32.
- 김혜원, 이해경 (2000). 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관련 경험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탐색: 초중고등학생간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 183-210.
- 박종효 (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41, 423-449.
- 박종효 (2004). 기질과 또래관계가 문제행동 및 학습수행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분석. 교육심리연구, 18, 41-5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3). 학교 폭력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청소년보호위원회.

- 한중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 103-114.
- Albow, J. C., Measelle, J. R., Kraemer, H. C. Harrington, R. et al. (1999). The MacArthur Three-City Outcome Study: Evaluating multi-informant measures of young children's symptomatolog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 1580-1590.
- Bates, J. E., Pettit, G. S., Dodge, K. A., & Ridge, B. (1998). Interaction of temperamental resistance to control and restrictive parenting in the development of externalizing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34, 982-995.
- Boivin, M., Hymel, S., & Bukowski, W. M. (1995). The roles of social withdrawal, peer rejection, and victimization by peers in predicting loneliness and depressed mood in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765-785.
- Cicchetti, D., Rogosch, F. A., & Toth, S. L. (1998). Maternal depressive disorder and contextual risk: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insecurity and behavior problems in toddlerhood.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0, 283-300.
- Cillessen, A. H. N. & Bellmore, A. D. (2002). Social skills and interpersonal perception in early and middle childhood. In P. K. Smith & C. H. Hart (Eds.), *Blackwell handbook of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pp. 355-374). Malden, MA: Blackwell Publishers.
- Coie, J. D., & Dodge, K. A. (1998).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 (Ed.), W. Damo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779-862). New York: Wiley.
- Coie, J. D., Terry, R., Lenox, K., Lochman, J., & Hyman, C. (1995). Childhood peer rejection and aggression as predictors of stable patterns of adolescent disor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697-713.
- Cowan, P. A., Cowan, C. P., Heming, G., & Miller, N. (1995). *The Child Adaptive Behavior Inven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Craig, W. M. (1998). The relationship among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123-130.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74-101.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Crick, N. R., Werner, N. E., Casas, J. F., O'Brien, K. M., Nelson, D. A., Grotpeter, J. K., et al. (1999). Childhood aggression and gender: A new look at an old problem. In R. A. Dienstbier (Series Ed.) & D. Bernstein (Vol.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45, Gender and motivation* (pp. 75-141).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73-112.
-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D., Bates, J. E., & Pettit, G. E. (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37-51.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Essex, M. J., Boyce, W. T., Goldstein, L. H., Armstrong, J. M., Kraemer, C. H., Kupfer, D. J., & the MacArthur Assessment Battery Working Group (2002). The confluence of mental, physical, social, and academic difficulties in middle childhood. II: Developing the MacArthur Health and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 588-603.
- Essex, M. J., Klein, M. H., Miech, R. & Smider, N. A. (2001). Timing of initial exposure to maternal major depression and children's mental health symptoms in kindergart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9*, 151-156.
- Goldsmith, H. H., Reilly, J., Lemery, K. S., Longley, S., & Prescott, A. (1993). *Preliminary manual for the Preschool Laboratory Temperament Assessment Battery (version 1.0)*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Psychology.
- Goodman, S. H., & Gotlib, I. H. (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Psychological Review, 106*, 458-490.
- Hart, C. H., Nelson, D. A., Robinson, C. C., Olsen, S. F., & McNeilly-Choque, M. K. (1998).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Russian nursery-school age children: Parenting style and marital link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4*, 687-697.
- Hay, D. F. (1997). Postpartum depress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L. Murray & P. J. Cooper (Eds.), *Postpartum depression and child development* (pp. 85-110). New York: Guilford Press.
- Hess, L. E. & Atkins, M. C. (1998). Victims and aggressors at school: Teacher, self, and peer perceptions of psychosocial functioning.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s, 2*, 75-89.
- Hodges, E. V. E.,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Hymel, S., Bowker, A., & Woody, E. (1993). Aggressive versus withdrawn unpopular children: Variations in peer and self-perceptions in multiple domains. *Child Development, 64*, 879-896.
- Jacobsen, T. & Hofmann, V. (1997). Children's attachment representa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school behavior and academic competency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703-710.
- Kaukianen, A., Bjorkqvist, K., Lagerspetz, K., Osterman, K., et al. (1999).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5*, 81-89
- Kochenderfer, B. K.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305-1317.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 1579-1601.
- Miller, P.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behavior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Murray, L., Fiori-Cowley, A. & Hooper, R. (1996). The impact of postnatal depression and associated adversity on early mother-infant interactions and later infant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2512-2526.
-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f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Hillsdale, NJ: Erlbaum.
- Park, J. (2003). Validating the effectiveness of a forgiveness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female aggressive victims in Korea.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Park, J., Essex, M. J., Zahn-Waxler, C., Armstrong, J. M., et al. (in press). Relational and overt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Early child and family risk factor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 Pope, A. W., & Bierman, K. L. (1999). Predicting adolescent peer problems and antisocial activities: The relative roles of aggression and dys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5*, 335-346.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othbart, M. K. & Bates, J. E. (1998). Temperament. In N. Eisenberg (Ed.), W. Damon (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 pp. 105-17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
- Rubin, K. H., Coplan, R. J., Fox, N. A., & Calkins, S. D. (1995).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preschoolers' social adapt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7*, 49-62.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A.,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9). Early behavior problems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191-201.
- Shields, A., & Cicchetti, D. (2001). Parental maltreat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risk factors for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linical and Child Psychology, 30*, 349-363.
- Shields, A., Ryan, R. M., & Cicchetti, D. (2001).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caregivers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predictors of maltreated children's rejection by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37*, 321-337.
- Wolke, D., Woods, S., Bloomfield, L., & Karstadt, L. (2000). The association between direct and relational bullying and behavior problems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1*, 989-1002.

---

1차 원고 접수 : 2005. 1. 15

수정 원고 접수 : 2005. 2. 22

최종게재결정 : 2005. 2. 25



## An Understanding of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Early Predictors and Later Impacts on Behavior Problems

Jong-Hyo Park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is study was aimed to investigate early predictors and impact of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n later behavior problems. A subgroup of children included in the Wisconsin Study of Child and Health (Essex, 2001) was assessed for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depression from infancy to preschool; child social perception skills in kindergarten;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grade 1; and behavior problems in grade 3.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children are more likely to be aggressive or victimized in grade 1 if they earlier showed higher levels of anger-prone temperament, lower levels of social perception skills, and higher levels of maternal depression. Differential predictors were found for relation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Girls are more likely to be relationally aggressive than boys; infants with high levels of reactive distress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ized in grade 1. Anger-prone temperament moderated the relation of maternal depression to peer problems: Children whose mothers were depressed were more likely to be aggressive or victimized if they were angry-prone and impulsive.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assessed in grade 1 explained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s 2 years later as well as concurrently, even after controlling for early predictors (risk factors). The long-term prospective data in this study contributes to better understanding of how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develop and how they impact later behavior problems.

*Keywords: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Victimization, Maternal Depression, Temperament, Social Perception Skills*